

프로필



김주홍 화천부군수

김주홍(56) 화천부군수는 “화천은 전국적으로 축제로 유명한 지역인 만큼 화천군민들의 뜻을 잘 이해하고 받들어 지역 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삼척 출신. 강릉고, 한국방송통신대를 졸업. 도회계감사담당, 일상감사담당, 공무원노사담당, 체육과장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조정희씨와 2녀.



김태영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김태영(57)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2018패럴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해 강원도를 세계 최고의 장애인 동계스포츠 선수들의 경연장으로 만들겠다”고 다짐. 도계종합고, 영주경상전문대를 졸업. 도 세정담당, 세입관리담당, 세무조사담당, 자연환경연구소 운영담당 등을 역임.

인사

◇강원도

▼국·과장급 전보·승진 △보건복지여성국장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승진) △의회사무처의사관 장시택(의회사무처의사관·〃) △환동해본부장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인재개발원인재개발정책관 박재철(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경제진흥국사회적경제과장 이경희(경제진흥국사회적경제과장직무대리·승진) △글로벌투자통상국중국통상과장 박대용(글로벌투자통상국중국통상과장·〃) △항공해운과장 최준석(항공해운과장·〃) △보건복지여성국공공의료과장 정승진(보건복지여성국공공의료과장·〃) △의회사무처기획행정전문위원 홍남기(의회사무처기획행정전문위원·〃)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윤상기(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환동해본부기획총괄과장 이시복(환동해본부기획총괄과장·〃) △총무행정관실2018동계조직위과견 김종욱(총무행정관실·〃) △

박광용(〃·〃) △ 전길탁(감사관실·〃) △재난안전실비상기획과과견 황덕창(재난안전실비상기획과·〃) △문화관광체육국체육과장전입 박광석(화천군) △화천군전출 김주홍(문화관광체육국체육과장) △올림픽운영국교통운영과장 박웅재(올림픽운영국교통운영과장직무대리·승진) △내수면자원센터소장 김형욱(내수면자원센터소장·〃) △총무행정관실2018동계조직위과견 한기표(총무행정관실·〃) △농정국농정과장직무대리 송기동(농정국농정과·〃) △문화관광체육국체육과강원도장애인체육회과견 김태영(기획조정실세정과·〃) △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직무대리 최형자(보건복지여성국복지정책과·〃) △건설교통국치수과장 서인철(감사관실·〃)

▼담당급 이하 전보·승진 △감사관실 박광용(글로벌투자통상국레고랜드지원과) △기획조정실균형발전과 우기성(재난안전실비상기획과) △경제진흥국정보산업과 김주선(기획조정실균형발전과) △글로벌투자통상국레고랜드지원

과 임현식(농정국유통원예과) △농정국농정과 우영석(경제진흥국정보산업과) △농업기술원총무과복지 이수종(기획조정실교육법무과) △총무행정관실행정자치부과견 김민석(글로벌투자통상국투자유치과) △글로벌투자통상국일본구미주통상과 유현주(글로벌투자통상국일본구미주통상과·승진) △문화관광체육국관광개발과 유정숙(문화관광체육국관광개발과·승진) △체육과 이국영(체육과·〃) △올림픽운영국문화행사과 이형찬(올림픽운영국문화행사과·〃) △설상시설과 김양수(설상시설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이상봉(행정본부기획정책부·〃) △총무행정관실사회갈등조정위원회과견 성수환(총무행정관실·〃)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과견 임계선(〃·〃) △환동해본부어업진흥과 김종광(환동해본부어업진흥과·〃) △수산정책과해양수산부과견 박선우(수산정책과·〃) △감사관실정홍섭(올림픽운영국설상시설과) △기획조정실기획관실우준형(기획조정실기획관실·

승진) △세정과 윤태환(총무행정관실·〃) △재난안전실비상기획과 김진호(감사관실·〃) △경제진흥국사회적경제과 허미영(기획조정실기획관실·〃) △글로벌투자통상국투자유치과 이경오(총무행정관실·〃) △보건복지여성국경로장애인과 허인자(보건복지여성국복지정책과·〃) △농정국유통원예과 이상열(경제진흥국경제진흥과·〃) △보건복지여성국복지정책과 홍복순(보건복지여성국여성성청소년가족과·〃) △올림픽운영국설상시설과 송창현(건설교통국도로철도과·〃) △도로관리사업소도로보수과장직무대리 김종덕(16일부)

※도 인사 명단은 강원일보 홈페이지(www.kwnews.co.kr) 참고.

결혼

◇최승우(홍천군 동면사무소 근무, 최기석 전 홍천군의회 부의장·유명옥씨 장남) 군남공소라(홍천군 건설방재과 근무, 남공관·엄명재씨 차녀) 양=18일 오후 1시 홍천군 흥천읍 K컨벤션웨딩홀 1층 진달래홀.

건설업계 올림픽 특수 사라져 경영 악화 우려

지난해 수주 3조1030억
올해 제자리·감소 전망
분할발주 지역참여 요구

사회간접자본(SOC) 정부 예산 축소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공사 완료 등의 이유로 수주 절벽이 예상되면서 강원도 내 건설업체들의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

15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 수주 규모는 3조1030억원으로 전년(2조9709억원)보다 소폭 상승할 것

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 건설공사 예상 수주액은 지난해 수준이거나 오히려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정부 SOC 예산이 2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23조7000억원)보다 6.6% 감액됐고 여기에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 공사가 올해 모두 마무리되면서 올림픽 특수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 건설협회는 지역업체 경영난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선 분할발주 확대를 통한 지역업체 입찰참여 기회를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내에서 올림픽과 철도·고속도

로 등 대형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형공사의 경우 입찰참여 제한으로 오히려 지역업체들은 심각한 수주난을 겪고 있다.

실제 동계올림픽 경기장 조성사업과 진입도로 건설사업에 도내 건설업체들의 참여율이 10% 미만이란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대형공사의 경우,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가속화시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도가 강원상품권을 발행해 건설업계에 유통시키려는 것도 이 같은 자금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건설공사 구조상, 강원상품권

이 유통되더라도 하도급업체에 전가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금 유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자금 유출 예방차원에서라도 대형공사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를 명시하고 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지역제한으로 발주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오인철 도건설협회장은 “올해 도내 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은 지난해 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도를 비롯 도내 공공기관들이 지역업체 우대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은복